

▶영화제, '날' 마다 이 영화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무현입니다'



'미스 프레지던트'



'해피버스데이'

'전주국제영화제는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열여덟 살, 청신한 얼굴이다. 영화제를 바라다보면 내가 전주에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가는 영화제 날짜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전주국제영화제 속에 있다.'  
- 시인 겸 수필가 피천득 선생의 수필 '5월' 패러디 -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전주국제영화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영계의 피톤치드 같은 독립·대인영화가 줄지어 영화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징검다리 황금연휴, 무작정 전주로 향하는 건 어떨런지.

'미스 프레지던트' 박정희 부녀 추종하는 노인 부부 일상 취재

'해피버스데이' 불우한 가족 이야기 괴이한 코미디로 풀어내

'지중해' 아프리카 탈출해 유럽에 도착한 두 청년의 힘겨운 삶



'지중해'



'나의 자전거에 대하여'



'금속활자의 비밀들'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 <노무현입니다: N 프로젝트> 이창재 감독

<N 프로젝트>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과 그의 대통령 시절 장면들을 병치시키며 그 두 시기의 노무현에 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감독은 노무현의 공과를 다루면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마무리는 한국에서 얼마나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암시적으로 주장한다.

▲10일 '유권자의 날' - <미스 프레지던트> 김재환 감독

박근혜가 청와대에 대통령의 딸로 임명했던 오래된 필름을 보여주며 시작하는 이 영화는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청와대를 나오는 것으로 끝난다. 한 개인의 삶은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된 상황으로 귀결되었으나 그가 대통령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대중 신화의 토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박정희 박근혜 부녀를 추종하는 한 노인과 부부의 일상을 밀착 취재해 그들의 삶에 어떻게 박 전 대통령 부녀의 리더십이 신화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심층 취재한다.

▲15일 '가정의 날' - <해피버스데이> 이승원 감독

<해피버스데이>는 한 불우한 가족의 이야기를 괴이한 코미디로 풀어낸다. '괴물'인 큰 아들의 집에 모이는 가족들 그리고 이 집안에서의 마지막 생일잔치가 시작된다. 엄마는 가족들에게 괴물의 방에 들어가 10분씩 마지막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 가족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상처와 비밀을 하나씩 털어놓는다. 영화는 트라우마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으로 가족의 실체에 대해 거듭 생각하게 만든다.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 <나의 자전거에 대하여> 박동현 감독

미국 내셔널 필름 아카이브에서 발굴한 6·25 관련 필름과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통합병원이었던 장소를 기록하며 국가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을 나의 자전거라는 의미로 기억을 재구성한 실험적인 다큐 영화이다.

▲19일 '발명의 날' - <금속활자의 비밀들> 우광훈·데이빗 레드맨 감독

캐나다인 데이빗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책인 직지에 대해 프랑스 유학시절 알게 된다. 13세기 당시 세계 최고의 문자 문화를 이룩한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이 원나라를 통해 유럽에 전파됐을 가능성을 찾아 유럽 5개국으로 떠난다.

▲20일 '세계인의 날' - <지중해> 조나스 카르피나노 감독

<지중해>는 아프리카 이민자 문제를 의제로 한 사회성 드라마. 아프리카를 탈출한 두 청년은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을 향한 냉대와 무정한 공동체의 기운, 이민자들의 분노와 마주한다. 지중해는 수년의 끝에 당도한 낙원의 허상을 그린다.

/정해은 기자

18th



▶이 영화 주목! '나의 학교 전체가 바다로 침몰한다'

## 침몰하는 세상, 현실과 상상속에서

자유로움과 상상력이 빛을 발하는 애니메이션 <나의 학교 전체가 바다로 침몰한다>도 놓치지 마길.

침몰하는 세상을 은유하는 <나의 학교 전체가 바다로 침몰한다>는 10대의 시선으로 시대를 성찰한다.

작품은 고등학교 2학년인 다쉬와 그의 절친 아사프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벌이는 오해와 다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붕괴되는 학교의 이미지들이 재기발랄하게 다가온다. 다쉬는 학교가 붕괴의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된 카페 테리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경고를 보내지만 곧바로 무시를 당한다. 이어지는 학교의 침몰은 현실 자체이기보다는 다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징적인 차원의 전개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학교가 붕괴되면서 이어지는 상황들이다. 학교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살아남기 위해 위로 올라와야만 한다. 하지만 곳곳에 있는 장애물들은 십사리 이 상황을 허락하지 않는다. 장애물과 극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 사이의 우정과 학창 시절을 상징적으로 다루면서 <나의 학교 전체가 바다로 침몰한다>는 하강과 상승의 드라마를 아가자기하게 펼쳐 보인다.

목소리 더빙에는 존 카메론 미첼을 비롯해 수잔 서랜든, 마야 루돌프, 제이슨 슈왈츠먼 등이 참여했다. /정해은 기자



▶영화제 폐막작 '서바이벌 패밀리'

##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진 현대인들 꼬집어 보기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서바이벌 패밀리>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지)의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는 동경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겪는 재난과 혼란을 다루고 있다. 갑작스러운 전기 공급의 중단으로 가족들은 시골의 바닷가 마을로 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담은 작품이다.

특히 <서바이벌 패밀리>는 재난영화의 문법 속에서 도시 문명의 허술함을 풍자하고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진 현대인을 향한 경쾌한 비판을 담았다.

전주국제영화제 이상용 프로그래머는 폐막작 선정 이유에 대해 "재난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문명에 밀려 망각해 버린 가치들이며, 야구치 시노부 감독은 이러한 상황들을 능숙하게 연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쾌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비판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매력의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영화다. 현대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바이벌 패밀리>로 돌아온 야구치 시노부 감독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워터 보이즈>(2001), <스윙걸즈>(2004) 등을 연출했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꾸준한 작품 활동을 선보이는 성실한 작가이기도 하다.

대중적인 코미디 장르를 감각 있고 자유롭게 요리하는 감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두터운 마니아층을 자랑하는 일본 감독 중 한 명이다. 올해 초에 일본에서 개봉했던 <서바이벌 패밀리>는 오랜만에 야구치 시노부의 제대로 된 영화가 등장했다며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다.

영화는 오는 6일 오후 7시 '전주 돔'에서 배우 김민준, 최송현이 사회자로 나선 폐막식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고사동 영화의 거리 내 옥토주차장 : 전주 라운지

# 나와, 영화보자

! 영화 상영 후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전주 돔 상영' + '뮤지션, 영화와 만나다' !

4. 28 Fri 19:00~

<파리의 밤이 열리면>

+ 공연: 페퍼톤스/솔루션스

4. 29 Sat 19:00

<아수라>

4. 30 Sun 16:00~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19:00~

<내 사랑>

5. 1 Mon 19:00~

<리베라시옹 데이>

+ 공연: 라이브호

5. 2 Tue 19:00~

<마스터>

5. 3 Wed 19:00~

<로스트 인 파리>

+ 공연: 멜로망스/치즈

5. 4 Tur 19:00~

<리틀 허버>

+ 스페셜 공연: 요조 "나.아.당.궁"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5. 5 Fri 14:00~

<파트와 매트>

독막독막 대소동(무료상영)

19:00~

<정글북>

+ 무료공연: 디에이드

(어쿠스틱 콜라보)/오웬

※ 아티스트 일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Jeonju Intl. Film Festival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돔 상영  
Jeonju Dome Screening

구독 · 광고문의 288-9700